

가사소리



[해제]

이 작품은 『가사소리』라는 이름의 전적에 수록된 가사이나 사실 정확한 제목은 알 수 없다. 함께 수록된 다른 작품들은 별도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지만 유독 이 작품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작품의 창작 시기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해봤을 때 삼정(三政)이 문란하였던 순조(純祖) 조부터 헌종(憲宗)년간의 작품으로 보인다. 작품에 ‘대전통편(大典通編)’이란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조(正祖) 9년(1785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을 듯하다. 작품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 가사는 <향산별곡>의 이본이라고 볼 수 있다. <향산별곡>은 두 가지 계열의 이본이 있는데 하나는 묘향산을 유람하고 쓴 기행가사 계열(<향산별곡 1>)이고, 다른 하나는 삼정(三政)의 문란과 과거제도의 타락상을 비판한 현실비평가사 계열(<향산별곡 2>)이다. 본 가사는 현실비평가사 계열에 속한다. <향산별곡 2>는 서두에 임병양란(壬丙兩亂)을 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본 가사에는 그 부분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 이후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화자는 백성의 중요성, 조정 대신의 무능, 목민관의 부정부패, 수령들의 탐학, 아전들의 악행을 통탄하며 비판하고, 삼정(三政)의 전 영역에 걸친 폐단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환곡분급(還穀分給)의 과정, 삼사월 농번기의 군역사(軍役事) 등 농민의 피해상도 가감 없이 전달하였다. 작품 후반부에는 과거제도의 부조리한 모습을 비판하였는데 경향간(京鄕間)의 구별을 신랄하게 비판한 점으로 보아 작자 역시 이러한 폐단으로 피해를 본 향촌의 하층 사족이 아닐까 생각된다. 19세기 향촌사회의 백성들이 부담하고 있었던 총체적인 문제점을 고발하면서 상층의 위정자들을 비판한 가사로 현실비판 의식이 잘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

가사소리

고성현의 유제오니 어이아니 미들잇가
 타국형제 바려두고 아국치세 알외리다
 조령죽령 험헌령을 문턱갓치 넘어들고
 동선령과 청성령을 평지갓치 횡횡하니
 각주도싱 피란하고 ㅁㅁ신민 업셔시니
 무인지경 되여스니 험헌보람 인나잇가
 지험산천 민지말고 함익싱영 건지소서
 은턱싸혀 뒤흔되여 곤륜갓치 놉하지고
 은턱흘너 물이되여 하히갓치 김혀지면
 외외탕탕 산슈를 그뉘라셔 디적허리
 아국적조 다더지고 타국싱민 오오리다
 동셔남북 스방민심 무사불복 허계되며
 만이비록 강디허나 저를어이 두리잇가
 중원성진 쓰리치고 되디갱회복 허계되면

안택安宅정노 발가지고 예약문물 빗나라다
 횡인行仁정스 발키하사 디보단명 일오소서
 승학스와 책화의을 밝키지다 성상님께
 조정에들 잇는분니 이니말숨 드러보소
 나라의식 먹고입고 무숨일을 하시는고
 청덕입시 하늘날의 요순도덕 알외신가
 상소되기 하늘날의 보민모척 알외신가
 한가흔씨 씨를타셔 위국원년 못하신가
 저당전을 저리익여 남정북벌 가라신가
 전조전손 힘써하되 병법잇다 못드름니
 나눈보니 쓸디업니 이회국가 쏘이르다
 스희형제 훈교보소 일국이야 일을소냐
 동주상봉 의양홀가 복안상시 어니하노
 아국산천 이별하고 타국으로 향하실제
 슬픈노리 훈곡조를 낙누하고 지으시니
 드르신가 못드른가 알고셔도 이즈신가
 위기설치 후기하고 위국설치 먼저하쇼
 식녹신조 되어잇셔 국은망극 이즐손가
 방척들과 슈령의계 진봉다소 척망말고
 준민고탁 하늘놈들 명고공척 하여보소
 보난말치 어이분고 나눈듯도 못하엿니
 민유방봉 이란말숨 성훈인줄 모를손가
 근지성쇠 보란거든 문이동속 두고보소
 근익고초 하게되면 지엄초제 되지그려
 저척성 업셔지면 나라이지 엿지하며
 나라이지 업셔지면 조정인들 견디력가
 우우하면 낙이오고 낙낙하면 우잇나니
 종말질겨 마르소서 시단근심 하오소서
 문남무변 목민중의 학민하늘 관장네를
 이니말숨 비척말고 잠심하여 들어보소
 성중에서 잇슬제는 총명인조 하다더니
 도임을 하신후이 어이저리 달나노고
 명기심의 바젯는가 간니슈의 들엇는가
 한소주의 삭안는가 진고량의 막현는가
 인든총명 어디가고 업든훈암 니여스며
 인든인자 어디가고 업든포학 니여노고
 니모를가 조니일을 조니일을 나눈아니
 천부지성 일은속의 위기지옥 길너니여

스단지목 다모로고 이오지심 쏠이로다
 션스양전 그만하고 지목씩성 흥여보소
 즈즈위이 흥시다가 무염지옥 니다르니
 탐학정사 그만하고 청송일절 민망흔의
 영성문의 드는괴시 포씩은전 션물이요
 동헌방의 싸인괴시 되신중신 횡간이라
 그러하고 공정쳐결 어디로써 나단말고
 관문밧기 션는송민 무숨일노 와잇는고
 좌우슈장 부엇거든 시송말고 가괴세라
 되션통편 속녹피라 예문장이 말되나냐
 마소마소 니모를싸 불인정스 너머마소
 적션적악 흥는중의 악격각지 흥나이다
 호싱오사 흥는마음 존비귀천 다를손가
 무죄씩성 무숨일노 저되도를 보치논고
 불상홀스씩성이냐 잔잉홀스씩성이냐
 씩성의말 허라흥면 목이메고 눈물나니
 되한소한 치운씨의 벗고곰고 스라나셔
 정이월이 다다르며 환즈성칙 감결보고
 즈로망되 영희끼고 허위허위 도리가셔
 너말타면 셔말되고 셔말타면 두말되니
 허다소술 스라나셔 그무어슬 먹잔말고
 무쥬공산 습쥬취야 너아니면 엇지술니
 숨스월 다다르면 셔득덕스 흥려하고
 남녀노소 니다라셔 빅야흐로 버을적의
 철모르는 즈니니논 군정녁스 무숨일노
 보사군의 스초군의 발인군의 석희군의
 쥬인스령 팔잘나셔 성화착니 빅즈치고
 면님이심 안동흥여 밧비가즈 직촉흥니
 돈업논놈 면홀손가 어든소를 도로쥬고
 음니가셔 점고하고 역척으로 니다르니
 스은늑온이 아전장교 큰미들고 두다리며
 밧비허라 직촉흥니 숨힘스이 잇슬손가
 업더지며 잣바지며 계우계우 마친후의
 집이라고 도라오니 업든병이 나노미라
 한들의도 두세번식 이런역사 흥노라니
 씨를임의 일엇스니 무삼농스 흥잔말고
 오육월이 다지니고 칠팔월이 다다르니
 쥬풍소소 송안군의 빅노상각 도라온다

낮슬가라 념히싸고 지게지고 가서보니
 심경이옥 ㅎ엿슬제 져들아니 되엿스니
 추슈홀것 전여업고 쾌겸홀것 전여업고
 환조결전 어이ㅎ며 신역스채 어이홀고
 아모련들 군향이아 아니ㅎ고 견딜손가
 평석혈씩 완석지고 계우구려 드러가니
 방조쫓고 통인쫓고 고직먹고 식니먹고
 다드러셔 썬어늬니 미슈절노 나논고나
 미슈빠셔 듀피늬여 검독장교 늬여노아
 가가호호 들싸면서 옥질미질 들부뵈여
 초지늬라 혼동ㅎ며 동하줄노 역기가니
 부정인들 견딜손가 계견일들 남을손가
 동딴셔릴 ㅎ여다가 계우필납 ㅎ고나니
 전습세를 밧치라고 ∞ ∞ ∞ ∞ ∞ ∞ ∞ ∞
 나라의셔 쥬신지결 바라기도 못ㅎ려니
 자리업는 허복손은 저딴도록 늬엿논고
 아모려도 원억ㅎ다 이를어이 ㅎ잔말고
 장의가셔 조희스셔 글ㅎ논딴 계우비러
 원통소지 서가지고 관문밧기 다다르니
 문직스령 마조셔셔 장목지촉 무슴일고
 각가스로 틸을타셔 소지씩활 썬알외나
 관스임이 보시다가 양천디소 ㅎ시면서
 셔원아지 늬아던가 불너세라 호령ㅎ니
 급창스령 되다러셔 쥬장으로 썬뒤집허
 족불니 지늬쳐숙 한말인들 잇슬는가
 밧썬너기 눈밤미을 예가팔고 제가파라
 풍설빙정 춤악훈딴 지고싯고 올나가셔
 크단말과 크단취로 안되여셔 밧조ㅎ니
 두말쌀을 밧치라면 셔말쌀이 너머든다
 솟도팔고 옷도파라 계우구려 필납ㅎ니
 스이스이 스채증독 일부일 조심ㅎ다
 조즐혈스 조구실을 어이그리 만든런고
 썬어적의 동아줄의 빅조갑세 장목갑세
 시초조강 치계들과 유형지지 화군갑쇄
 칠월더위 국마모리 셋달치위 남로산희
 전전냥냥 모아늬여 삼비스빅 드러가니
 이돈인들 공혈논가 쌀을씨어 무전ㅎ니
 민간괴식 참흥인딴 장시직은 디풍일다

니암일을도 이러흔디 빅골도망 등보들은
 삼족일족 원근간의 두세번식 물여니니
 적신들만 남아세라 그무어슬 쥬단말고
 모진마음 다시먹고 관문안의 드리다라
 명정후신 사도님기 민망빅활 알외니다
 마른남기 물이날싸 일족물것 업나이다
 원님얼골 니아던가 형방놈이 니다라셔
 쇠장불너 큰칼씨워 혼옥후라 직촉후니
 순식간의 칼을쓰고
 옥문안의 들어가니
 궤상육된 도슈놈들 고쳐들고 니다라셔
 술갑니라 즈저귀며 발썬논양 즈기엎다
 옷슬버셔 쇠장쥬고 전당후고 술을바다
 형방쇠장 먹인후에 살여쥬고 이걸후니
 형방놈이 들어가셔 무어시라 술아썬지
 옥슈몰여 정일후고 방속후라 분부후니
 칼과옥을 근면후니 부전천일 후엿고나
 절이년의 못밭치면 이거쥬가 쏘잇스라
 이방스치 흘지라도 보신혈쥬 바히업셔
 복모분산 영결후고 천심모발 벳더리고
 사의씨여 곡갈후고 기즈리버셔 바랑후고
 족박씨여 옆희초고 즈른망디 썩거집고
 혼손으로 계집잡고 혼손으로 쥬식잡고
 호천디곡 혼소리의 청천빅일 빗치엎다
 중의몸이 되온후의 쳐쥬식을 권련후라
 팔도고계 바라보고 슝립문뱃 써나셔니
 어제그제 밝든길니 오날이야 어둡거다
 고은계집 만난고기 년들마다 혈가마는
 가흔정스 뵤어호라 아니가고 견딜는가
 늘근놈은 거스되고 절문놈은 중이되고
 그도저도 못된놈은 현누덕이 질머지고
 계집쥬식 압세우고 유리스방 기걸후니
 칠팔십세 늘그니는 구학송장 절노되고
 장정들은 스라나셔 구명도싱 후려후고
 당적으면 서절구투 당만후면 명화디적
 저일드리 뉘타시니 의민션정 못혈는가
 치적후는 영장들아 포적후여 살씨라도
 쥬뢰난정 급히말고 죄지경중 슬퍼쥬소

민무항산 헉엇스니 함어기죄 괴이허랴
 저도만일 기과하면 동시아국 적조로다
 그렁죄령 헉노라니 남은씩성 얼마되리
 조서인들 살펴보소 뷔여간다 군정치부
 접고씩곳 다다르면 각면면입 잡아다가
 가함군정 알외라고 엄이분부 헉온신들
 썩이라고 빗저니며 남기라고 싹가닐씩
 그적이야 오작허야 원님위염 뵈라하고
 세ᄇᆞᆫ창 젓쳐노코 저근눈을 크게쓰고
 형틀동틀 되려다가 업쳐의고 짓쳐의고
 우리간튼 되알소리 좌우로셔 이러나며
 피가흘너 닉가되고 살리쳐져 빼나가니
 어제논놈 그제논놈 일흠지여 고라하니
 쥬인불너 비조쥬어 안동허여 착니허랴
 저것들의 괴동보소 심혈미긋 강보아을
 전둘몰여 가로안고 울며불며 드러오니
 그리희도 군정이나 군적식을 불너드려
 안척의도 치부허며 상수의도 보한다니
 잘먹으이 그러한가 비위들도 조흘시고
 산의가나 들의가나 장정씩성 만타마는
 무슴일노 군안척의
 퍽골유치 썩일넉고
 강보군스 달닌장슈 예로부터 못드름니
 산천형세 기험흔들 놀다리고 막조허며
 성곽쥬회 견고흔들 놀다리고 질힐손가
 원찬들도 헉련니와 정확중의 든듯시뵈
 이니말슴 총곡하니 퍽방사지 헉여보소
 익군지심 두엇거든 익민지심 먼저허소
 신조도리 허랴거든 나라일을 심썩허소
 무슴일노 병이드려 썩달를줄 모로논고
 세구연심 고질되면 불치지증 되오리다
 세상명의 밧비초져 약을허여 속치허소
 약을알여 가라거든 지로힘은 닉허오리
 니천니를 것너셔셔
 명도길노 초쳐가면
 회암선싱 경험방의 조목조목 바리허스니
 이런병에 먹노약은 심경쥬에 닉법하니
 인산모에 피는약을 지슈물에 씨셔니여

문무화로 전반하여 공심은복 하게되면
 십이경위 씨인니종 거약칭신 호오리다
 니말갓치 이리하여 저병드리 낮게되면
 허든일들 후회하여 빅성불낫 난여허리
 가소가소 어셔가소 니일점점 느껴가닉
 어제그령 이젓고나 쏘훈말슴 호오리다
 조정일들 호느중의 과거일절 훈심후데
 알성정시 조흔과거 글을낭은 아니보고
 정초보고 글시보아

경향갈나 등을씨니

시골선비 글조흔들 방상괘명 엇지허리
 식년증별 다더지고 공도희도 스도회라
 가련허다 향유들의 발신호는 거동보소
 스셔삼경 종종외와 장주장하 조어급제
 황각흑각 각각휘여 흥허복실 위력급제
 이두가지 아니러면 ∞∞∞∞ ∞∞∞∞
 위국충절 가지기는 서울시골 다를손가
 치국보민 호느뉴는 경전야슈 중의잇닉
 상벌분명 하게되면 현능진지 허리이다
 향국포의 참모국스 불가훈줄 알건만는
 교목세신 후예로셔 감국스지 일비하고
 일촌간장 모도씩어 슈귀가스 읍퍼니니
 광망허다 마르시고 명촉시비 호오소서

습江亭歌

구경가조 구경가조 합강정 구경가자
 시유구월 념이일의 길일인가 가절인가
 관풍찰속 우리순상 이날에 셔유허니
 천추성절 즐거오나 창으므운 비감허다
 음쥬유상 죠홀시고 쥬쥬방장 고령허라
 북궐분우 몽의스오 남쥬민막 니아던가

[현대역]

가사소리

고(古) 성현(聖賢)의 유제(遺戒)1이오니 어찌 아니 믿으리까
 타국(他國) 형세(形勢) 버려두고 아국(我國) 치세(治世) 아뢰리다
 조령(鳥嶺)2 죽령(竹嶺)3 험한 령(嶺)을 문턱같이 넘어들고
 동설령(銅雪嶺)과 청석령(靑石嶺)4을 평지(平地)같이 횡행(橫行)5하니
 각자도생(各自圖生)6 피란(避亂)하고 (해석 불가) 신민(臣民) 없었으니
 무인지경(無人之境) 되었으니 험한 보람 있나이까
 지험산천(至險山川)7 민지(民志)8 말고 함낙생령(陷溺生靈)9 건지소서
 은덕(恩德) 쌓여 뉘10가 되어 곤륜(崑崙)11같이 높아지고
 은덕(恩德) 흘러 물이 되어 하해(河海)같이 깊어지면
 외외(巍巍)12탕탕(蕩蕩)13 산수(山水)를 그 뉘라서 대적(對敵)하리
 아국적자(我國赤子)14 다더지고 타국생민(他國生民)15 오오리다
 동서남북(東西南北) 사방(四方) 민심(民心) 무사불복(無思不服)16 하게 되며
 만이(蠻夷)17가 비록 강대(強大)하나 저를 어이 두리오리까
 중원(中原) 성진(腥塵)18 쓰리치고 대경회복(大明恢復) 하게 되면
 안택(安宅)19 정로(正路) 밝아지고 예악문물(禮樂文物) 빛나리다
 행인정사(行仁政思)20 밝게 하사 대보단명(大報壇名) 이루소서
 삼학사(三學士)21와 척화외(斥和議)22를 밝히리다 성상(聖上)23님께
 조정에들 있는 분들이여 이내말씀 들어보소
 나라의식 먹고 입고 무슨 일을 하시는고
 청대입시(請對入侍) 하는 날에 요순도덕(堯舜道德) 아뢰시는가
 상소(上疏) 대계(臺啓)24 하는 날에 보민모책(保民謀策)25 아뢰시는가
 한가한 때 때를 타서 위국원려(爲國遠慮)26 못하시는가
 저 당전(黨戰)27을 저리 이겨 남정북벌(南征北伐)28 가라하시는가
 전자전손(傳子傳孫)29 힘써하되 병법(兵法)있다 못 들으네
 나는 보니 쓸데없네 이해국가(貽害國家)30 뿐이로다
 사해형제(四海兄弟) 훈교 보소 일국(一國)이야 이룰소냐
 동조상봉(同朝相逢) 매양(每樣)할까 백안상시(白眼相視)31 어이하노
 아국산천(我國山川) 이별(離別)하고 타국(他國)으로 향하실제
 슬픈 노래 한 곡조(曲調)를 낙루(落淚)32하고 지으시니
 들으셨는가 못들으셨는가 알고서도 잊으셨는가
 위기설치(爲己雪恥)33 후에 하고 위국설치(爲國雪恥)34 먼저 하소

식록신자(食祿臣子)35 되어 있어 국은망국(國恩罔極)36 잇을손가
 방백(方伯)37들과 수령(守令)에게 진봉다소(進封多少)38 책망(責望) 말고
 준민고택(浚民膏澤)39 하는 놉들 명고공책(鳴鼓攻責)40 하여보소
 본란말치(本亂末治)41 어이 본고 나는 듯도 못하였네
 민유방본(民惟邦本)42 이란 말씀 성훈(聖訓)인줄 모르겠는가
 근지성쇠(根枝盛衰)43 보려거든 문외종수(門外種樹)44 두고 보소
 근맥고초(根脈枯焦)45 하게 되면 지엽차제(枝葉次第)46 되지그러
 저 백성(百姓)이 없어지면 나라 의지(依支) 어찌하며
 나라 의지(依支) 없어지면 조정(朝廷)인들 견디리까
 우우(憂憂)47하면 낙(樂)이 오고 낙락(樂樂)48하면 우(憂)있나니
 종말(終末) 즐겨 마소서 시단(始端) 근심 하오소서
 문남무변(文男武弁) 목민(牧民)중에 학민(虐民)49하는 관장(官長)네들
 이내 말씀 배척(排斥)말고 각심(刻心)50하여 들어보소
 성중(城中)에서 들을 제는 총명인자(聰明仁慈) 하다더니
 도임(到任)을 하신 후에 어이 저리 다르신고
 명기생(名妓生)에 빠졌는가 간리수(奸吏袖)51에 들었는가
 환소주(還燒酒)52에 삭았는가 진고량(珍膏梁)53에 막혔는가
 있던 총명(聰明) 어디 가고 없던 혼암(昏暗)54 생겼으며
 있던 인자(仁慈) 어디로 가고 업던 포악(暴惡) 내었는고
 내 모를까 자네 일을 자네 일을 나는 아네
 천부지성(天賦之性)55 잃은 속에 위기지욕(爲己之慾)56 길러내어
 사단지목(四端之目)57 다 모르고 이욕지심(利慾之心)58 뿐이로다
 선사양천(善事兩銓)59 그만하고 자목백성(字牧百姓)60 하여보소
 자자우리(孜孜爲利)61 하시다가 무염지욕(無厭之慾)62 내달리니
 탐학정사(貪虐政事) 그만하소 청송일절(聽訟一節) 민망(憫惘)63함
 염석문(簾席門)에 드는 것은 포백은전(布帛銀錢) 선물(膳物)이오
 동헌방(東軒房)64에 쌀인 것은 대신중신(大臣重臣) 청간(請簡)65이라
 그러하고 공정처결(公正處決) 어디에서 난단 말인고
 관문(官門)밖의 서있는 송민(訟民) 무슨 일로 와있는 고
 좌우수장(左右手掌) 뵈었거든 시송(始訟)말고 가 계셔라
 대전통편(大典通編)66 속록비(孰錄非)67라 옛 문장(文章)이 말되느냐
 마소마소 내 모를까 불인정사(不人正事) 넘어 마소
 적선적악(積善積惡) 하는 중(中)의 양경각지(殃慶各至)68 하나이다
 호생오사(好生惡死)69 하는 마음 존비귀천(尊卑貴賤) 다를 손가
 무죄백성(無罪百姓) 무슨 일로 저 대도를 보채는고
 불상(不祥)할 사 백성(百姓)이나 잔인(殘忍)할 사 백성(百姓)이나
 백성(百姓)의 말 하라하면 목이 메고 눈물 나네
 대한소한(大寒小寒) 추운 때에 벗고 굶고 살아나서

정이월(正二月)이 다다르며 환상(還上)70 성책(成冊) 감결(甘結)71 보고
 자루망태 옆에 끼고 허위허위72 들어가서
 너말 타면 서말 되고 서말 타면 두말 되니
 허다소솔(許多所率)73 살아나서 그 무엇을 먹잔 말인고
 무주공산(無主空山)74 삼주채야 너 아니면 어찌 살리
 삼사월(三四月)이 다다르면 서주역사(西疇役事) 하려하고
 남녀노소(男女老少) 내달아서 바야흐로 버을 적에
 철모르는 자네네는 군정(軍政)75 역사(役事)76 무슨 일로
 보사군의 사초군(莎草軍)의 발인군(發靱軍)의 석회군(石灰軍)의
 주인사령(主人使令) 팔 잘라서 성화촉내(星火捉來)77 패자(牌子)차고
 면님이심 안동(眼同)하여 바빠가자 재촉(催促)하니
 돈업는 농 면(免)할 손가 얻은 소를 도로 주고
 고을가서 점고(點考)78하고 역처(役處)로 내다르니
 사오나온이 아전장교 큰 매 들고 두드리며
 바빠하라 재촉(催促)하니 숨 쉴 사이 있을 손가
 엮어지며 자빠지며 겨우 겨우 마친 후에
 집이라고 돌아오니 없던 병이 나음이라
 한 달에도 두세번씩 이런 역사(役事) 하노라니
 때를 이미 잃었으니 무슨 농사(農事) 하잔 말인고
 오뉴월(五六月)이 다 지나고 칠팔월(七八月)이 다다르니
 추풍소소(秋風蕭蕭) 송안군(送雁羣)79의 백로상강(白露霜降)80 돌아온다
 낫을 갈아 옆에 끼고 지게지고 가서보니
 심경(深耕)81 이옥 하였을 제 저인들 아니 되었으랴
 추수(秋收)할 것 전혀 없고 괘겸(掛鎌)82 할 것 전혀 없고
 환자결전(還子結錢)83 어이 하며 신역사채 어이 할꼬
 아무런들 군향미(軍餉米)84야 아니하고 견딜손가
 평석할 때 완석지고 겨우 굴러 들어가니
 방자(房子)85 뜯고 통인(通引)86 뜯고 고직(庫直)87 먹고 색리(色吏)88 먹고
 다들어서 떼어내니 미수절로 나는 구나
 미수 빼어 주패내어 감독장교 내려놓아
 가가호호(家家戶戶) 둘러싸면서 옥질 매질 돌부부여
 차지(此地)내라 호통하며 동아줄로 엮어가니
 부정인들 견딜손가 계견(鷄犬)89인들 남을 손가
 동대서를 하여다가 겨우 필납(畢納)90 하고 나니
 전삼세(田三稅)91를 바치라고 (해석 불가)
 나라에서 주신 재결 바라지도 못하려니
 자리 없는 허복손은 저다지도 내였는고
 아무래도 원억(冤抑)하다92 이를 어이 하잔 말인고

장에 가서 조회93 사서 글하는데 겨우 빌어
 원통(冤痛) 소지(所志)94 써가지고 관문밖에 다다르니
 문직(門直)95 사령 마주 서서 장목 재촉 무슨 일이고
 가까스로 틈을 타서 소지(所志)백활 껴 아뢰니
 관사님이 보시다가 양천대소(仰天大笑)96 하시면서
 서원아지 내 알던가 물러서라 호령하니
 급창(及唱)97 사령 내달려서 주장으로 꼭 뒤집혀
 족불이 지나쳐서 한 말인들 있을런가
 발떼기 논밤이를 여기 가서 팔고 저기 가서 팔아
 풍설빙정 참악(慘惡)한 데 지고 신고 올라가서
 큰 말과 큰 휘로 안되어서 바치라하니
 두 말 쌀을 바치라면 서 말 쌀이 넘어든다
 술도 팔고 옷도 팔아 겨우 굴러 필납(畢納)하니
 사이사이 사채(私債) 중독 일부일(日復日)98 자심(滋甚)하다99
 자즐혈사 잔 구실을 어이 그리 만들었는고
 떼어적에 동아줄의 배자갑세 장복갑세
 시초조강 치계(雉鷄)100들과 유청지지 화군갑세
 칠월(七月) 더위 국마모리 선달 치위101 납토산해
 전전양양 모아내어 삼배사배 들어가니
 이 돈인들 공할란가 쌀을 찢어 무전하니
 민간기색(民間氣色) 참흉(慘凶)102한데 장시직은 대풍(大豊)이다
 내 앞일도 이러한데 백골도망 동보들은
 삼족일족(三族一族) 원근간의 두세번씩 물어내니
 적신(賊臣)103들만 남았어라 그 무엇을 준단 말인가
 모진 마음 다시 먹고 관문 안에 들어가서
 명정하신 사도님께 민망백활 아뢰었다
 마른 남개 물이 날까 일족 물것 없나이다
 원님 얼굴 내 알든가 형방 놈이 내달아서
 쇠장(鎖匠)104 불러 큰 칼 씌워 하옥하라 재촉하니
 순식간에 칼을 쓰고
 옥문(獄門) 안에 들어가니
 궤상육된 도수(刀手)놈들 고채 들고 내달아서
 술값 내라 지저귀며 발딛는 양 즈기없다
 옷을 벗어 쇠장 주고 전당(典當)105하고 술을 받아
 형방쇠장(刑房鎖匠) 먹인 후에 살려주고 애걸하니
 형방(刑房)놈이 들어가서 무엇이랴 살았던지
 옥수(獄囚)106 올려 정일(定日)107하고 방송(放送)108하라 분부하니
 칼과 옥을 근면하니 부전천일 하였구나

정일내에 못 바치면 이거조가 또 있으랴
 이방사치 할 지라도 보신할 길 전혀 없어
 부모분산 영결하고 천생모발 뱃더리고
 사매 데어 곡갈(曲葛)109하고 기즈리 벗어 바람하고
 쪽박 끼어 옆에 차고 자른 망대 꺾어 잡고
 한 손으로 계집 잡고 한 손으로 자식 잡고
 호천(呼天)110 대곡(大哭)111하는 소리에 청천백일(青天白日)112 빛이 없다
 중의 몸이 된 후에 처자식을 권련(眷戀)113하라
 팔도고개 바라보고 사립문밖 떠나서니
 어제 그제 밝던 길이 오늘에는 어둡구나
 고운 계집 맛난 고기 낸들 마다할까마는
 가혹한 정사 맹어호(猛於虎)114라 아니 가고 견딜런가
 늙은 놈은 거사(居士) 되고 젊은 놈은 중이 되고
 그도 저도 못된 놈은 현 누더기 짚어지고
 계집 자식 앞세우고 유리(流離)115 사방 개걸(丐乞)116하니
 칠팔십세(七八十歲) 늙은이는 구학송장 절로 되고
 장정들은 살아나서 구명도생(苟命圖生)117 하려하고
 당 적으면 서절구투(鼠竊狗偷)118 당 많으면 명화(明火)119 대적(大賊)120
 저 일들이 누구의 탓이리 애민선정(愛民善政)121 못하겠는가
 치적(峙積)122하는 영장(領將)들아 포적하여 살지라도
 주뢰난정 급히 말고 죄지경중(罪之輕重)123 살피주소
 민무항산 하였으니 함어기죄 괴이하랴
 저도 만일 개과하면 동시아국 적자로다
 그렇 재령 하노라니 남은 백성 얼마 되리
 자서인들 살펴보소 비어간다 군정(軍政) 치부
 접고 때곳 다다르면 각 면 면임(面任)124 잡아다가
 가학(加虐) 군정(軍政) 아뢰라고 엄히 분부 하오신들
 떡이라고 빚어내며 남이라고 깎아낼까
 그적이야 오죽하여 원님 위엄 뵈랴하고
 세살 쌍창 열어놓고 작은 눈을 크게 뜨고
 형틀125 동틀126 들어다가 업어 메고 젓혀 메고
 우리같은 대알소리에 좌우가 일어나며
 피가 흘러 내가 되고 살이 처져 베어 나가니
 어제 난 놈 그제 난 놈 이름 지어 고과(告課)127하니
 주인 불러 배자 주어 안동하여 착내하라
 저것들의 거동 보소 생혈미간 강보 아기를
 젓줄 물려 가로 안고 울며 불며 들어오니
 그렇게 해도 군정이라 군적(軍籍)128색을 불러들여

안책에도 치부하며 상사에도 보한다네
 잘먹으니 그러한가 비위들도 좋을시고
 산에 가나 들에 가나 장정백성 많다마는
 무슨 일로 군안책(軍案冊)에
 백골(白骨) 유치(幼齒)129 뿐일런고
 강보군사 달린 장수 예로부터 못들을 네
 산천형세(山川形勢) 기험(崎險)한들 누구를 데리고 막자하며
 성곽주회(城郭周回)130 견고한들 누구를 데리고 지킬손가
 원찬들도 하려니와 정확중의 든든시비
 이내말씀 충곡(衷曲)131하니 백방사지 하여보소
 애군지심(愛君之心) 두었거든 애민지심(愛民之心) 먼저 하소
 신자도리 하려거든 나라일을 힘써 하소
 무슨 일로 병이 들어 깨달을 줄 모르느고
 세구연심(歲久年深)132 고질(痼疾)133되면 불치(不治) 지중(至重) 되오리다
 세상 명의(名醫) 바빠 찾아 약을 하여 속히 치료하소
 약을 알려 가려거든 지로힘은 내하오리
 이천내를 건너서서
 명도길로 찾아가면
 회암선생 경험방(經驗方)134에 조목조목 밝혔으니
 이런 병에 먹는 약은 심경135 주에 낼 법하니
 인산모에 피는 약을 지수(池水)물에 씻어 내어
 문무화(文武火)136로 전반하여 공심(空心)137 온복(溫服)138하게 되면
 십이경에 쓰인 내용 거약생신(去惡生新)139 하오리다
 내 말같이 이리하여 저 병들이 낫게 되면
 하던 일을 후회하여 백성 볼 낫 난연(赧然)140하리
 가소 가소 어서 가소 내 일 점점 늦어가네
 어제 그렇 잊었구나 또 한 말씀 하오리다
 조정일들 하는 중에 과거(科擧) 일절 한심하다
 알성(謁聖)141 정시(庭試)142 좋은 과거 글일랑은 아니 보고
 정초보고 글씨보아
 경향(京鄕) 갈라 등(等)143을 쓰니
 시골 선비 글자한들 방상괘명(榜上掛名)144 어찌하리
 식년(式年)145 증벌 다 던지고 공도회(公都會)146도 사도회라
 가련하다 향유(鄕儒)147들의 발신(發身)148하려는 거동보소
 사서삼경(四書三經) 종종 외워 장주장하 조어 급제
 황각흑각 각각 휘어 흉허복실(胸虛腹實) 위력급제
 이 두 가지 아니면 흥패 구경 어이할꼬149
 위국충절(爲國忠節) 가지기는 서울 시골 다를 손가

치국보민(治國保民) 하는 류(類)는 경전아수 중에 있네
상벌(賞罰) 분명 하게 되면 현능 진지 하리이다
향곡포의 참모(參謀) 국사 불가한 줄 알지만
교목세신(喬木世臣)150 후예(後裔)로서 감국사지 일비하고
일촌간장(一寸肝腸)151 모두 썩어 수기가사(手記歌辭)152 읊어내니
광망(狂妄)하다153 마시고 명촉시비(明燭是非)154 하옵소서

습江亭歌

구경가자 구경가자 합강정 구경가자
시유구월(時維九月) 념이일(念二日)1의 길일(吉日)인가 가절(佳節)인가
관풍찰속(觀風察俗)2 우리 순상(巡相)3 이 날에 선유(船遊)4하네
청추(淸秋)5 성절(盛節)6 즐거우나 창오(蒼梧)7 모운(暮雲)8 비감(悲感)9하다
음주유산(飲酒遊山)10 좃을시고 추사(秋事)11 방장(方壯)12 고념(顧念)13하라
북궐(北闕)14 분운(紛紜)15 몽외사(夢外事)16요 남주(南州)17 민막(民瘼)18 내 알던가

[각주]

- 1) 유계(遺戒) : 죽은 사람이 남긴 훈계.
- 2) 조령(鳥嶺) : 경상북도 문경시와 충청북도 괴산군 사이에 있는 고개.'새재'라고도 함.
- 3) 죽령(竹嶺)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과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이에 있는 고개.
- 4) 청석령(靑石嶺) : 평안북도 의주에서 심양 가는 곳에 있는 지명.
- 5) 횡행(橫行) : 거리낌 없이 감.
- 6) 각자도생(各自圖生) : 각자 살아갈 길을 도모함.
- 7) 지형산천(至險山川) : 매우 험준한 산과 내.
- 8) 민지(民志) : 백성의 뜻.
- 9) 함낙생령(陷溺生靈) : 함정에 빠지고 물에 빠진 백성들.
- 10) 뫼 : 산.
- 11) 곤륜(崑崙) : 곤륜산.중국 전설상의 높은 산으로 중국의 서쪽에 있으며, 옥이 난다고 함.
- 12) 외외(巍巍) : 산이 매우 높고 우뚝함.
- 13) 탕탕(蕩蕩) : 물의 흐름이 거센.
- 14) 아국적자(我國赤子) : 우리나라의 백성.
- 15) 타국생민(他國生民) : 다른 나라의 살아 있는 백성.
- 16) 무사불복(無思不服) : 생각하여 복종하지 않음이 없음.
- 17) 만이(蠻夷) :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남쪽과 동쪽에 있는 종족을 낮잡는 뜻으로 이르던 말.
- 18) 성진(腥塵) : 비린내가 나는 먼지라는 뜻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이르는 말.
- 19) 안택(安宅) : 안전하고 걱정 없이 편히 살 만한 곳.
- 20) 행인정사(行仁政思) : 어진 정치를 베푸는 유교의 사상.
- 21) 삼학사(三學士) : 병자호란 때 중국 청나라에 항복하는 것을 반대한 세 사람의 학사.홍익한 · 윤집 · 오달제를 이르는데, 모두 청나라에 붙잡혀 갔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살해되었음.
- 22) 척화의의(斥和意) :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한 논의.
- 23) 성상(聖上) : 살아있는 자기 나라의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 24) 대계(臺啓) : 조선 시대에,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臺諫)들이 벼슬아치의 잘못을 임금에게 보고하던 글.
- 25) 보민모책(保民謀策) : 백성을 지키는 꾀와 책략.
- 26) 위국원려(爲國遠慮) : 나라를 염려하는 원대한 생각.
- 27) 당전(黨戰) : 당내 분파 사이, 혹은 당과 당 사이의 싸움.
- 28) 남정북벌(南征北伐) :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토벌함.
- 29) 전자전손(傳子傳孫) : 자손에 전하여.
- 30) 이해국가(貽害國家) : 남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
- 31) 백안상시(白眼相視) : 백안시(白眼視).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흘겨봄.중국의 『진서(晉書)』 「완적전(阮籍傳)」에서 나온 말로, 진나라 때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완적(阮籍)이 반갑지 않은 손님은 백안(白眼)으로 대하고, 반가운 손님은 청안(靑眼)으로 대한 데서 유래함.
- 32) 낙루(落淚) : 눈물을 흘림.
- 33) 위기설치(爲己雪恥) : 나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씻음.

- 34) 위국설치(爲國雪恥) : 나라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씻음.
- 35) 식록신자(食祿臣子) : 나라에서 주는 녹봉이나 먹으며 축내고 있는 신하.
- 36) 국은망극(國恩罔極) : 나라의 은혜가 다함이 없음.
- 37) 방백(方伯) : 도지사'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 38) 진봉다소(進封多少) : 조정에 올리는 진상품이 많고 적음.
- 39) 준민고택(浚民膏澤) : 백성의 고혈을 뽑아낸다는 뜻.재물을 마구 착취하여 백성을 괴롭힘을 이르는 말.
- 40) 명고공책(鳴鼓攻責) : 북을 두드리며 공격하며 책망함.
- 41) 본란말치(本亂末治) : 근본이 어지러운데 말단만 다스리려고 함.
- 42) 민유방본(民惟邦本) : 백성은 나라의 근본.
- 43) 근지성쇠(根枝盛衰) : 뿌리와 가지가 풍성한가 쇠약한가.
- 44) 문외종수(門外種樹) : 문 밖에 심어둔 나무.
- 45) 근맥고초(根脈枯焦) : 뿌리와 줄기가 타서 말라버림.
- 46) 지엽차제(枝葉次第) : 다음 차례는 가지와 앞이다.
- 47) 우우(憂憂) : 『맹자』에 나오는 말로, 나라의 백성들이 근심하기 전에 먼저 근심하는 관리의 자세를 말함.
- 48) 낙락(樂樂) : 역시 『맹자』에 나오는 말로,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한 다음에 기뻐하는 관리의 자세를 말함.
- 49) 학민(虐民) : 백성에게 가혹하게 함.
- 50) 각심(刻心) : 명심(銘心).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둠.
- 51) 간리수(奸吏袖) : 간사한 아전의 소맷깃.
- 52) 환소주(還燒酒) : 소주를 다시 고아서 내린 소주로 보통 막소주보다 독함.
- 53) 진고량(珍膏梁) : 고량진미(膏梁珍味).기름진 고기와 좋은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
- 54) 혼암(昏暗) : 어리석고 못나서 일에 어두움
- 55) 천부지성(天賦之性) : 하늘이 내려준 착한 본성.
- 56) 위기지욕(爲己之慾) : 자신만을 위하여는 욕심.
- 57) 사단지목(四端之目) : 사단은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네 가지 마음씨.공 인(仁)에서 우러나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의(義)에서 우러나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예(禮)에서 우러나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지(智)에서 우러나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의 네 가지.
- 58) 이욕지심(利慾之心) : 이익을 챙기고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 59) 선사양천(善事兩銓) : 이조전랑(吏曹銓郎)과 호조전랑(戶曹銓郎)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그들을 섬김.
- 60) 자목백성(字牧百姓) : 백성을 애호하면서 잘 기름.
- 61) 자자위리(孜孜爲利) : 열심히 이익만 챙김.
- 62) 무염지욕(無厭之慾) : 물리지 않는 욕망.
- 63) 민망(憫惘) : 근심이 되어 정신이 하나도 없는 모양.
- 64) 동헌방(東軒房) : 예전에, 동헌 안의 방을 이르던 말.
- 65) 청간(請簡) : 청탁하는 서간.

- 66) 대전통편(大典通編) :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법전(法典).
- 67) 속록비(孰錄非) : 누구를 잘못이라 기록하겠는가?
- 68) 양경각지(殃慶各至) : 재앙과 경사가 각각 옴.
- 69) 호생오사(好生惡死) :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함.
- 70) 환상(還上) : 각 고을의 사창에서 백성(百姓)에게 꾸어 주었던 곡식(穀食)을 가을에 받아들이는 일.
- 71) 감결(甘結) :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던 공문.
- 72) 허위허위 : ① 손발 따위를 이리저리 내두르는 모양.② 힘에 겨워 힘들어하는 모양.
- 73) 허다소솔(許多所率) : 딸린 식구가 매우 많음.
- 74) 무주공산(無主空山) : 인가도 인기척도 전혀 없는 쓸쓸한 곳.
- 75) 군정(軍政) : 조선 시대에, 삼정(三政) 가운데 정남(丁男)으로부터 군포(軍布)를 받아들이던 일.
- 76) 역사(役事) :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공사.
- 77) 성화촉내(星火捉來) : 득달같이 재촉하며 옴.
- 78) 점고(點考) :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 가며 사람의 수를 조사함.
- 79) 송안군(送雁羣) : 봄이 되어 떠나가는 기러기 떼를 전송함.
- 80) 백로상강(白露霜降) : 이십사절기의 하나.백로는 처서(處暑)와 추분(秋分) 사이에 들며, 9월 8일경 이고, 상강은 한로(寒露)와 입동(立冬) 사이에 들며,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내려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으로 10월 23일경.
- 81) 심경(深耕) : 밭을 깊게 갈.
- 82) 괘겸(掛鎌) : 낫을 걸어둠.
- 83) 환자결전(還子結錢) : 환자란 조선 시대에 곡식을 사창(社倉)에 저장하였다가 봄이 되면 백성들에게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또는 그 곡식을 뜻하며 결전(結錢)이란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 때 다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을 말함.
- 84) 군향미(軍餉米) : 군량미.
- 85) 방자(房子) : 지방의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남자 하인.
- 86) 통인(通引) : 조선 시대에 수령의 잔심부름을 하던 이.
- 87) 고직(庫直) : 관아의 창고를 보살피고 지키던 사람.
- 88) 색리(色吏) : 감영이나 군아에서 곡물을 출납하고 간수하는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 89) 계견(鷄犬) : 닭과 개.
- 90) 필납(畢納) : 납세나 납품 따위를 끝냄.
- 91) 전삼세(田三稅) : 전지(田地)에 매기던 전세(田稅)·대동미·호포(戶布)를 통틀어 이르던 말.
- 92) 원억(冤抑)하다 : 원통한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
- 93) 조회 : 종이.
- 94) 소지(所志) : 청원이 있을 때에 관아에 내던 서면.
- 95) 문직(門直) : 문지기.
- 96) 양천대소(仰天大笑) :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거나 어이가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음.
- 97) 급창(及唱) : 조선 시대에, 군아에 속하여 원의 명령을 간접으로 받아 큰 소리로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사내종.

- 98) 일부일(日復日) :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된다는 뜻으로, '날마다'를 이르는 말.
- 99) 자심(滋甚)하다 : 더욱 심하다.
- 100) 치계(雉鷄) : 꿩과 닭.
- 101) 치위 : 추위.
- 102) 참흉(慘凶) : 비참하고 끔찍한 흉년.
- 103) 적신(賊臣) : 반역하거나 불충한 신하.
- 104) 쇠장(鎖匠) : 옥쇠장.
- 105) 전당(典當) :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맡긴 물건 따위를 마음대로 처분하여도 좋다는 조건하에 돈을 빌리는 일.
- 106) 옥수(獄囚) : 옥에 갇힌 사람.
- 107) 정일(定日) : 날짜를 정함.
- 108) 방송(放送) : 죄인을 감옥에서 나가도록 풀어 주던 일.
- 109) 곡갈(曲葛) : 고깔.
- 110) 호천(呼天) :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음.
- 111) 대곡(大哭) : 큰 소리를 내어 곡하거나 슬프게 울.
- 112) 청천백일(青天白日) : 하늘이 맑게 갠 대낮.
- 113) 권련(眷戀) : 간절히 생각하며 그리워함.
- 114) 가혹한 정사 맹어호(猛於虎) :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
- 115) 유리(流離) : 일정한 집과 직업이 없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님.유리표박(流離漂泊).
- 116) 개걸(丐乞) : 빌어서 먹음.
- 117) 구명도생(苟命圖生) : 구차한 목숨이라도 살아나가기를 꾀함.
- 118) 서절구투(鼠竊狗偷) : 쥐나 개처럼 몰래 물건을 훔친다는 뜻으로, '좀도둑'을 이룸.
- 119) 명화(明火) : 횃불과 무기를 들고 공공연히 활동한다는 뜻으로, 거리낌 없이 강탈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이룸.
- 120) 대적(大賊) : 크게 떼를 지은 도둑.
- 121) 애민선정(愛民善政) : 백성을 사랑하여 바르고 어질게 잘 다스리는 정치.
- 122) 치적(峙積) : 높이 쌓음.
- 123) 죄지경중(罪之輕重) :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
- 124) 면임(面任) : 조선 시대에, 지방의 면에서 호적과 공공사무를 맡아보던 사람.
- 125) 형(形)틀 : 죄인을 심문할 때에 앉히던 형구(形具).
- 126) 동틀 : 형틀.
- 127) 고과(告課) : 하급 관리가 윗사람이나 상사에게 신고하던 일.
- 128) 군적(軍籍) : 군인의 소속과 신원을 적어 놓은 명부.
- 129) 유치(幼齒) : 어린 나이.
- 130) 성곽주회(城郭周回) : 성곽 둘레.
- 131) 총곡(衷曲) :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마음의 깊은 속.흔히 간절하고 애뜻한 마음을 이룸.
- 132) 세구연심(歲久年深) : 세월이 매우 오래됨.

- 133) 고질(痼疾) : 오랫동안 앓고 있어 고치기 어려운 병.
- 134) 경험방(經驗方) : 실제 많이 써서 경험하여 본 약방문.
- 135) 심경(心經) : 수소를 심경.경맥들의 기본이 되는 심이정경의 하나.
- 136) 문무화(文武火) : 몽근하게 타는 불과 세차게 타는 불.
- 137) 공심(空心) : 공복(空腹).
- 138) 온복(溫服) : 약을 따뜻하게 데워서 먹음.
- 139) 거악생신(去惡生新) : 굳은살을 없애고 새살이 나오게 함.
- 140) 난연(赧然) : 수줍어서 낯빛이 붉음.
- 141) 알성(謁聖) : 알성시(謁聖試).조선 시대에, 임금이 문묘에 참배한 뒤 실시하던 비정규적인 과거 시험.
- 142) 정시(庭試) : 조선 시대에,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안에서 보이던 과거.
- 143) 등급(等) : 등급.
- 144) 방상과명(榜上掛名) : 과거에 급제하여 과방(科榜)에 성명이 기록되던 일.
- 145) 식년(式年) : 자(子), 묘(卯), 오(午), 유(酉) 따위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해에 과거를 실시하거나 호적을 조사하였음.
- 146) 공도회(公都會) : 조선 시대에 관찰사나 유수(留守)가 해마다 관내(管內)의 유생들에게 보게 하던 소과 초시(小科初試).성종 때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제술(製述)·고강(考講)의 두 가지 시험을 보게 하였는데, 합격자는 다음 해 생원·진사의 복시(覆試)를 치를 수 있었음.
- 147) 향유(鄉儒) : 시골에 사는 유생.
- 148) 발신(發身) : 천하거나 가난한 처지를 벗어나 앞길이 훤히 트임.
- 149) 흥패 구경 어이할꼬 : 원문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본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구절로 추정된다.
- 150) 교목세신(喬木世臣) : 여러 대에 걸쳐 중요한 벼슬을 지낸 집안 출신이어서 나라와 운명을 같이하는 신하.
- 151) 일촌간장(一寸肝腸) : 한 토막의 간과 창자라는 뜻으로, 애달프거나 애가 타는 마음을 이르는 말.
- 152) 수기가사(手記歌辭) : 자신의 생활이나 체험을 직접 쓴 가사.
- 153) 광망(狂妄)하다 : 미친 사람처럼 아주 망령되다.
- 154) 명촉시비(明燭是非) : 밝게 살펴 옳고 그름을 따짐.
- 1) 시유구월(時維九月) 념이일(念二日) : 때는 구월 이십이일. 념이일(念二日)은 22일. 염(念)은 스물.
- 2) 관풍찰속(觀風察俗) : 풍속을 자세히 살펴봄.
- 3) 순상(巡相) : 순찰사(巡察使). ① 조선 시대에, 병란(兵亂)이 있을 때 왕명으로 지방의 군무(軍務)를 순찰하던 임시 벼슬. ② 조선 시대에, 도(道) 안의 군무를 순찰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각 도의 관찰사가 겸임하였다.
- 4) 선유(船遊) : 뱃놀이.
- 5) 청추(淸秋) : ① 맑게 갠 가을. ② 음력 8월을 달리 이르는 말.
- 6) 성절(盛節) : 번성하는 계절.
- 7) 창오(蒼梧) : 순(舜) 임금이 남순(南巡)하던 도중에 죽은 곳이다.
- 8) 모운(暮雲) : 저녁 구름.

- 9) 비감(悲感) : 슬픈 느낌. 또는 그런 느낌이 있음.
- 10) 음주유산(飲酒遊山) : 산에서 술 마시며 노닐.
- 11) 추사(秋事) : 가을에 하는 일.
- 12) 방장(方壯) : 바야흐로 한창임. 방극(方極;한창 바쁜 때)으로 되어 있는 이본도 있음.
- 13) 고념(顧念) : 남의 사정이나 일을 돌보아 줌.
- 14) 북궐(北闕) : 경복궁을 창덕궁과 경희궁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15) 분운(紛紜) : ①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음. ② 떠들썩하여 복잡하고 어지러움.
- 16) 몽외사(夢外事) : 꿈 밖의 일.
- 17) 남주(南州) : 남쪽 고을.
- 18) 민막(民瘼) :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치는 정치 때문에 국민이 고생하는 일.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